



4면

농촌유학 활성화 순창군과 힘모은다

전주매일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음 2월 8일) 제32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수제맥주 국산화 이뤄낸 군산의 가능성 봤다”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군산

군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등 점검·시민과 소통 나서
수제맥주 일괄생산 체계 갖춘 '비어포트' 찾아 간담회
“청년들이 정착하고 미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새해 시·군 순회방문 일환으로 군산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김임준 군산시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군산 펌브러리 일원에 자리한 비어포트를 방문해 군산 수제맥주 우수성을 칭찬하고 있다.

새해 시·군 순회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이번엔 군산시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고, 군산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4일 김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군산시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지역발전 및 다양한 시장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정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기금 대응 특ruk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김 도지사는 시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 한 해 군산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 3개월만에 재가동되면서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단에 미래 유망산업 22개사, 8000억원 규

모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청원 방문을 마친 김 도지사는 군산 비어포트를 방문해 생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어포트는 군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수제맥주 창업을 위한 양조장과 판매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지역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밀(벼), 보리) 위주의 농업생산 구조로 돼 있다.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득 작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보리 수매 중단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대한 불안정에 따라 보리재배에 큰 위기를 맞게 되고 시는 보리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보리 가공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부터 최상의 맥주원료 생산을 위해 지역에 최적인 맥주보리 품종 선정부터 재배단계의 품질 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맥주보리 전용 재배단지 32ha를 조성했다. 이어, 2020년에는 군산맥아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맥아제조기술을 확보

표준화된 군산맥아 제조공정도 개발을 완료하게 됐다. 군산맥아 양조적성 테스트와 군산맥주 18개 제품의 레시피를 개발해 상품화 준비를 마무리하고, 4개소의 로컬맥주 업체를 창업시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군산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맥주보리재배부터 맥아공, 맥주양조까지 수제맥주 일괄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군산맥아는 국내 최초의 양조용 맥아 브랜드로 품질면에서도 수입맥아

와 비교해 수제맥주 양조용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어포트 방문을 마친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 청년협회의체(위원장 윤여웅)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여웅 위원장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각종 청년 지원책 추진에 감사드리며, 군산에 더 많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에 발걸음을 해주신 김관영 도지사께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정 목표인 ‘더 특별한 전북시대, 함께 혁신 합력 성장’에 군산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소통 행보를 마친 김관영 도지사는 “수제맥주의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비어포트에 군산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군산 및 전북의 청년들이 우리 곁에서 정착하고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내달부터 찾아가는 법률
세무 이동상담실 운영
도, 도청 내서만 운영 무료
희망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내달 3일 부안 시작 11월까지

전북도는 생활속 법률·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매월 2~3회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는 2013년부터 본관 1층에 ‘희망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74여건(월평균 20건)을 상담하는 등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농촌지역 거주 도민 등 ‘희망법률 상담실’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법률·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시·군을 방문해 각종 법률·세무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이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상담실은 3월 3일 부안군청(5층)을 시작으로 3월 30일 무주군청, 4월은 완주군 군산시 등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총 20회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하지만, 도청 법무행정과 또는 시·군 관련 부서에 상담을 예약하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 상담실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유선(280-2847) 또는 도청 누리집을 이용해 상담을 예약 받아 매주 첫째·셋째 수요일 주간과 둘째·넷째 목요일 야간에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가뭄 대책, 과할 정도로 꼼꼼히 추진을”

김관영 도지사 주재,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전북도는 지난 24일 삼진강댐 물문 화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 유관기관과 도 관련부서 실·국장 등을 김·김제·부안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대책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주재해 기관별 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가뭄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삼진강댐 현장을 둘러본 김 도지사는 “직접 현장에 와보니 저수율이 평년 대비 절반 정도인 19.6%로 매우 낮아

삼진강댐 용수공급지역인 정음의 생활용수와, 정음 김제, 부안 지역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며, “재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대응하고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고 강도 높게 특별 지시했다. (관련사진 3면) 전북은 현재 최근 6개월 강수량은 457.9mm로 평년대비 72.1%이며, 저수율은 생활용수의 경우 34.6%(총 13

억6,200만톤 중 4억7,100만톤), 농업용수의 경우 59.2%(총 7억4,000만톤 중 4억1,500만톤)이다. 행안부 발표 2월 기준 도내 가뭄에·경보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농업용수 가뭄에 정음(관심), 김제, 부안(주의) △생활용수 가뭄에 정음(경계) △기상 가뭄에는 순창 고창(관심)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

터 가뭄 대응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합동 전담반(T/F) 주간 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도내 유관기관 및 시군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또한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가뭄대책 사업비 60억원 투입해 관정 681공, 뚝방 15개소를 상반기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확보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36억6,000만원)은 가뭄

지역 7개 시군에 교부해 저수지 준설 및 관정 개발 등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삼진강댐 공급지역인 동진유역(김제, 정음, 부안)의 영농철(4~6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총 4,700만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는 저수율이 낮은 삼진강댐 용수 비축을 위해 댐 하루 하천유량과 연계하고 용담댐과 부안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등 총 8,800만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8월말 우기철 이전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관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용가능한 재원과 장비는 물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금수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물 사용량을 평소에 절감하는 것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다”며,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께서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음시의회

정음시의회 www.jcc.or.kr